

www.epc.go.kr



war

terror

전쟁
테러
재난발생시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국민행동요령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CONTENTS

21세기의 안보환경 2

비상상황에 대한 준비 5

상황별 국민행동요령 15

비상사태 발생 16

다중이용시설 피해발생 23

유독가스 누출 및 오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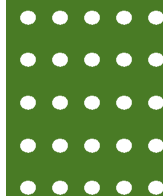
세균살포 및 전염병 발생 35

방사능 물질 누출 40

기상악화 및 지진 발생 45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55

21세기의 안보환경



21세기의 안보환경



20세기 말 구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50년간 지속되었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인류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 21세기를 맞이하였으나 또다른 형태의 안보위협이 지구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민족간, 종교간, 종족간의 대립과 분쟁은 계속되고 살상과 보복의 악순환은 인류의 평화염원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 마약, 해적행위 등 초국가적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9월,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 테러사건을 시작으로 뉴테러리즘이란 새로운 형태의 테러가 세계질서를 테러와 반테러로 재편시키고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몇몇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우려를 가중시키고 이를 제지하려는 국제적인 압력으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2004년 동남아를 휩쓴 쓰나미와 2005년 미국의 남부를 수몰시킨 허리케인, 파키스탄을 매몰시킨 지진 등 자연재해와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신종 전염병은 새로운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의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안보환경도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을 따라 잡겠다는 중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치, 외교, 군사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은 보통국가를 지향한다는 명분하에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며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굶주려 있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불안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안보환경과 더불어 국내의 안보환경도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인구집중과 도시화, 교통과 통신의 발달, 대형건물 및 산업시설 등은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동시에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전국에 산재된 각종 산업용 가스, 공업용 유해물질 등은 언제라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쟁, 테러, 재난 등 각종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각자의 안전을 위한 주체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비상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각자가 관심을 갖고 비상시 초기에 대처를 잘 한다면 대부분의 재난은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방호하는 “전통적인 안보”는 군인이 주로 담당하였지만 재난, 테러 등을 포함하는 “21세기 포괄안보시대”에는 국민 모두가 안보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나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국민 각자가 가질 때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과 도전은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상황에 대한 준비



정부의 비상대비



정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준비하고 있다. 발생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전쟁이나 테러 또는 재난 등이 국민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 전쟁위험이 고조되면...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충무사태(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 ➡ 어떠한 도발도 개전초기에 격멸할 수 있도록 군사대응태세를 유지한다.
- ➡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지정하여 유통질서를 유지한다.



- 물가단속반을 운영하여 매점매석, 판매기피, 사재기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 필요시에는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고가격을 지정하며 공급을 조절한다.

- ▶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등 유통질서를 통제하기 곤란할 때에는 배급제를 실시한다.

– 배급제 실시 품목(6개) : 쌀, 보리쌀, 라면(수도권), 소금, 유류(난방/취사용), 부탄 캔(수도권)

※ 각 가정에서는 평소에 양곡, 연료 같은 생필품을 15일분

내지 1개월분 정도를 비축해 두어야 한다.



- ▶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급수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단지에는 저수조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별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갖추고 있다.

– 급수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 부분단수 때에는 급수차량을 활용하거나 먹는 샘물 공급업체를 동원하여 급수한다.

- ▶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량의 석유류와 가스 등을 사전 비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도입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 ▶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능력은 충분하고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 전력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해 놓고 평시부터 훈련을 하고 있다.

– 아파트단지, 병원, 산업시설 같은 주요시설에는 비상자가발전기가 비치되어 있다.

● 수도권 주민과 차량 통제

- ▶ 수도권 주민을 보호하고 혼란으로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통제한다.

– 전쟁초기에는 자동차의 운행을 전면통제한다.

–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운행제한을 완화하며 생업활동을 재개하도록 조정한다.

- ▶ 수도권은 주민과 차량이 포화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파난은 도시기능을 완전 마비시키고 주민생활을 혼란상태로 빠뜨릴 수 있으므로 정부는 현 위치에서 국민생활안정, 국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민·관·군의 힘이 결집된 총력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 점적지역의 주민과 차량 통제

- ▶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점적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고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주민과 차량을 대피 또는 이동시킨다.
- ▶ 행정기관을 통해 주민이 소산하거나 후방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유입은 통제한다.
 - 상황을 고려하여 소산지역으로 긴급 대피토록 안내한다.
 - 상황악화시 지정된 후방지역으로 주민이동을 지시한다.
 - 통·리 단위로 이동제대를 편성하여 지정된 이동로를 따라 주민이 후방지역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 후방지역에는 이동해 온 주민을 위한 수용시설과 구호물자 등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있다.
 - 후방지역으로 이동 후에는 행정조직을 재구성하여 주민이 이동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한다.



테러가 발생하면

● 무력테러 대응

- ▶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대규모 또는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력을 동원하여 대응한다.
- ▶ 소규모 국지적 테러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경찰서장 통제하에 경찰특공대, 5분대기조 등을 투입하여 조치한다.
 - 현장을 봉쇄하고 인명을 구조하며 범인의 퇴로를 차단한다.
 -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인질구출 및 범인 진압을 지휘한다.
 - 합동조사반이 출동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추가 테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 ▶ 사상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치료한다.

● 생화학테러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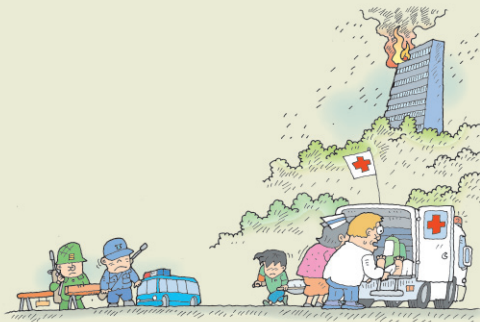
- ▶ 군·경의 제독부대, 생물테러대책반 및 화재방기동대 등 전문대책팀이 출동하여 조치한다.
- ▶ 현장에서는 환자의 구출과 후송, 방제, 오염 확산 방지활동을 신속하게 실시한다.
 - 현장으로의 주민과 차량접근을 통제한다.
 - 응급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후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 오염범위 확인 후 필요시 지역내 주민을 대피시킨다.
- ▶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범인과 원인을 수사하고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한다.

● 방사능테러 대응

- ➡ 원자력시설 공격에 대비해 시설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 ➡ 핵물질 탈취에 대비해 국제기구와 협조해 핵물질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내부의 사보타지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 ➡ 테러가 발생하면 원자력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 대책팀이 출동하여 조치하고, 방사능 오염환자는 원자력의학원 등에서 치료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 ➡ 정부에서는 재난규모,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춘다.
- ➡ 재난극복에 필요한 물자와 자재는 평시에 비축하고 있으므로 재난발생시 이를 활용하여 조기에 수습 및 복구한다.
- ➡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체계적인 수습 및 복구를 보장한다.



국민이 사전에 준비할 사항



전쟁·테러·재난발생시 상황을 상상해 보고 가정단위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한다.

- ➡ 출타중인 가족과는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
- ➡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대피할 경우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서류나 문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 부동산 관련 문서 또는 서류, 신분증, 보험증서, 현금 등
- ➡ 상황별 개인행동요령을 숙지한다.
- ➡ 가족과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날 장소를 정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비상대비물품은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식량 15일~1개월분(쌀, 보리쌀, 라면, 밀가루 등)
- 소금 및 부식류, 취사 및 난방용 유류, 부탄캔, 침구류 및 의류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탈지면, 붕대, 라디오, 건전지, 휴대용전등, 양초,ライター(성냥)
- 방독면, 보호옷, 방독장갑 및 장화(마스크, 비옷, 고무장갑 및 장화)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숙지한다.

- ➡ 민방위경보시 : 지하도나 건물의 지하실 등
- ➡ 재난발생시 : 인근의 학교강당이나 공공시설의 넓은 공간 등

비상사태 발생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한다.

- ➡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한다.
- ➡ 대처방법을 생각한다.
- ➡ 이용가능한 통로, 도구를 찾아야 한다.
- ➡ 질서있게 조치하고 대피한다.
- ➡ 방송안내를 청취한다.
- ➡ 신속하게 신고한다.(테러 111, 재난 119)



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비상사태 발생



우리 국민 모두는 평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추구하는 이해관계는 서로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만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때로는 전쟁으로 발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아무리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위기상황이 발생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곤 했던 것이다. 특히 최근의 국제관계는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탈피해 다분히 국가 이익의 충돌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원인에서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총무사태 발령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지만 국민들은 국민 각자가 질서를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할 때 국가전체가 효율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위기가 고조되어 총무사태(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되면



- ▶ TV, 라디오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 ▶ 직장이나 가정에서 정부통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 ▶ 총무사태(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되더라도 무조건 피난을 가거나 식량, 연료 등의 생활필수품을 사재기 하지 않는다.
- ▶ 정부의 주민 및 차량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직장이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 ▶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하도, 지하철 등 가까운 대피소 위치와 대피로를 확인하고 비상대비물품의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 ▶ 목욕조나 물통, 빙그릇 등에 물을 충분히 받아 두어 단수될 경우에 대비하고 부근의 비상급수원 위치를 확인한다.
- ▶ 불필요한 전화사용은 자제함으로써 통화량 급증으로 인한 전화불통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다.

- ▶ 상황이 악화되어 정부에서 통제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등교를 계속한다.
- ▶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말고 낯선 사람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닐 때에는 즉시 경찰이나 군부대, 행정관서에 신고한다.
- ▶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은 읍·면·동 단위로 민방위대장의 통제에 따라 세부편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직책과 임무 등을 숙지해야 한다.
- ▶ 재난이나 적의 공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인명구조와 소화, 재난복구 등에 적극 동참한다.
- ▶ 헌혈 및 채혈에 적극 협조하고 전주민 구호, 진료보조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 ▶ 읍·면·동 직원이 동원영장을 교부해 주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받은 후 확인 서명한다.
- ▶ 교부받은 영장내용을 확인하고 동원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집결지로 정해진 일시까지 도착한다.
- ▶ 정해진 집결지에 도착한 후에는 인도인접 사무소에서 동원연명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도착했음을 인도인접관에게 확인 받는다.
- ▶ 도착 확인 후에는 인접관이나 해당 부대, 직장의 통제에 따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이동하거나 임무수행할 준비를 한다.
- ▶ 집결지 도착 이후부터는 임의로 집결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 ▶ 시설이나 장비가 동원대상인 경우에는 정상적

인 가동에 필요한 수리부속 등을 갖추고 동원영장에 명시된 일시·장소에서 사용기관이나 부대 등에 인계한다.

- ▶ 동원되어 가기 전에 가정은 본인이 없더라도 가족들이 현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물품을 점검하고 가까운 대피소와 대피로를 다시 한번 숙지시키며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 주어 걱정하지 않도록 한다.

● 전쟁위협이 고조되면

최전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과 차량을 통제한다. 또한 후방지역 중에서도 군사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적 공격시 대량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시설 주변지역의 주민과 차량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통제한다.

▶ 접적지역 주민은

- 시·군·구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소산지역으로 소산한다.
- 이 때 가족 중 출타인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류하도록 조치한다.
- 소산지역에서 후방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
 - 가족, 이동시 사용할 차량, 이동계획 등을 확인한다.
 - 이동시 휴대할 품목을 점검한다.(1인당 약 20kg 정도)



비상식량 7일분(5인가족 경우 쌀 15kg),
부식 및 간이 식품, 내의, 담요, 천막, 소독제,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탈지면, 반창고, 붕대, 취사도구, 라디오,
휴대용 전등, 양초, 라이터(성냥), 방독면(마스크),
보호옷(비옷), 방독장갑 및 장화(고무장갑 및 장화) 등

• 이동지시를 받으면

– 기본 휴대품을 차량에 싣고 지정된 장소에 집결한다.

(차량 미보유 세대는 행정관서에서 차량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

– 남은 식량은 행정기관을 경유하여 군부대에 인계하고 차량이나 농기계 등은 주요부품을 제거하여 기능을 마비시킨다.

– 이동제대장 통제에 순응하고 계획된 이동로를 따라 후방으로 이동한다.(임의적인 대열 이탈 금지)

• 후방지역 수용시설에 도착하면

– 개인연고지로 이동 희망시 연고지로 개별 이동한다. (단, 수도권으로의 이동 제외)

– 기타 인원은 배정된 시설에서 행정기관 통제하에 생활한다.

▶ 취약지역 주민은

- 행정관서로부터 소산지시를 받으면 사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
- 소산지역으로 이동 후에는 그 곳에서 계속 생활하므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최대한 휴대하여 이동한다.
- 소산하기 전에 가옥 내 전기플러그를 제거하고 가스 및 수도밸브를 잠그며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여 적의 공격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집을 나설때 출입문에 흰수건 등을 걸어 두어 '소개완료' 표시를 한다.

●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정부통제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 경계경보(평탄음 1분간 울림)가 발령되면 대피할 준비를 한다.

- 노약자와 어린이는 먼저 대피시키고, 비상대비 물품을 미리 옮긴다.
-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열기 코드는 제거한다.

▶ 공습경보(파상음 3분간 울림)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한다.

- 지하도나 지하철 역, 건물의 지하실이나 아래층으로 대피한다.
- 가급적 화생방 보호장비와 간단한 생활필수품을 휴대한다.
- 차량운전중일 경우에는 부근의 빈터나 도로의 좌·우측에 차를 세우고 가까운 지하도나 건물지하실 등으로 대피한다.

▶ 화생방경보(라디오, TV, 확성기)가 발령되면

- 주변 사람들에게 경보를 전파하면서 방독면 또는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보호하고 보호옷이나 비닐 또는 비옷 등을 착용하여 몸을 보호한다.

- 화학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대나 건물의 상층부로 대피하되 실내에 대피했을 때에는 문을 꼭 닫고 오염된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형겅이나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에는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물만 먹는다.
- 핵 공격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지하도나 지하철역, 건물의 지하주차장 및 지하실 등 지하시설로 대피한다. 미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되 양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리며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격이 끝난 후에도 그 일대에 독성화학물질이나 가스, 세균 또는 방사능물질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정부의 해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방독면이나 손수건, 보호옷이나 비닐 및 비옷 등을 계속 입은 상태를 유지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 정부기관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할 때 까지는 대피소 실내에 머무르고 그 일대가 오염되었을 때에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오염지역을 신속히 이탈한다.
- 밤에는 불을 꺼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불을 켜야 할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커튼이나 담요로 창문을 가려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피해 발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 대형건물이나 지하철 등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하면 극도의 혼란과 공포심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우왕좌왕하게 되어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으므로 이럴 때일수록 모든 사람들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의거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대형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 ▶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 ▶ 근처에 소화기나 소화전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불을 초기에 진압한다.
- ▶ 진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불이난 곳의 반대방향 쪽 비상계단을 이용할 것
 - 화장실이나 막다른 통로로 가지 말 것
 - 엘리베이터는 운행 중 정전에 대비하여 이용하지 말 것
- ▶ 불길을 피해 이동 중 방화문이나 비상계단 출입문에 도착한 후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 밖에 화재가 진행 중이므로 문을 열지 말고 다른 통로를 찾아야 한다.
- ▶ 불길을 통과할 경우에는 물에 적신 수건이나 담요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 보호해 준다.
- ▶ 안내원이 있을 경우 안내원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한다.
- ▶ 1층에 도착하면 지하주차장으로 가지 말고 곧바로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 건물 밖으로 나와서는 건물의 붕괴에 대비해 견고한 외벽을 따라 이동하고
- 건물높이의 2배 이상 거리가 떨어진 곳까지 대피한다.

▶ 지상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

-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 옥상으로 가는 길도 막혔을 경우에는 창가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119 또는 가족·친지 등에게 현재의 상황과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 휴대전화를 켜놓으면 유사시 위치 추적 가능함.

- ▶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불을 꺼야 한다.(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더 번짐)

● 테러나 화재로 인한 건물 폭발시

- ▶ 바닥에 엎드리거나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다.
- ▶ 이용가능한 안전한 통로를 찾는다.(피해를 입지 않은 복도, 계단)
- ▶ 화재 발생시와 동일한 요령으로 지상으로 대피한다.

● 건축물 일부가 붕괴되었을 경우

- ▶ 엘리베이터실, 계단실과 같이 압력에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한다.

- ▶ 침착하게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는다.
- ▶ 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을 휴대하고 건물 밖으로 탈출가능한 통로를 찾는다.
- ▶ 통로를 찾아 이동할 때에는 방석 등으로 각자의 머리를 보호하면서 질서있게 움직이고, 이동로상에 있는 장애물은 가급적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추가붕괴를 막아야 한다.
- ▶ 건물 밖에 있는 주민은 추가적인 붕괴나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건축물 일부가 붕괴되어 잔해에 깔린 경우

- ▶ 잔해에 깔린 경우에는 잔해를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구조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 불필요한 체력소모를 막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요청한다.
- ▶ 구조요청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쇠파이프나 배관, 소리가 나는 물체를 두드리고
 -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거나 큰 소리를 지른다.
 - 휴대전화 불통지역일 경우 배터리 절약을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일정한 주기로 켜놓아 위치 추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 ▶ 유리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위험지역을 회피하고 담요, 박스, 신문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한다.

- ▶ 공기공급이 잘 되는 곳을 찾은 후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린다.
- ▶ 구조될 때까지 누출된 가스폭발에 대비하여 성냥이나 스토브를 켜지 말고 손전등을 사용한다.
- ▶ 잔해에 깔려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경우에는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준다.
- ▶ 구조대의 호출이 있을 때에는 침착하게 응답하되, 체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고함을 지르지 않아야 한다.
- ▶ 구조대가 가까이 왔을 경우에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구조대를 부른다.
- ▶ 구조대가 나를 발견하고 구조를 개시하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지하철에서 화재 발생시

- ▶ 노약자·임산부·장애우 좌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한다.
- ▶ 객차에 비치된 소화기(2개)를 이용하여 불을 끈다.
- ▶ 객차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된 경우 이를 착용한다.(방연마스크가 없을 때는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음)

▶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 출입문 쪽 의자 아래쪽에 있는 뚜껑을 열고 비상코크를 당겨 공기를 뿜 후(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나온다.
- 또는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유리창을 부순 후 전동차 밖으로 나온다.

▶ 지하철역에서는 유도등이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가거나 벽을 짚으면서 이동하여 역 밖으로 대피한다.

▶ 역과 역 사이에서 재난시에는 전동차에서 철길로 내려와 열차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벽을 짚으면서 다음 역까지 이동하여 역 밖으로 대피한다.

▶ 가능하면 소화전,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 진화한다.

● 대피시 유의사항

- ▶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보호하면서 2인 이상 함께 행동한다.
- ▶ 이동 및 대피시 벽돌이나 유리 등의 파편에 주의한다.
- ▶ 유독가스 누출시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통상 바닥에서 20cm 높이까지는 공기가 남아 있음)
- ▶ 급하다고 하여 고층에서 뛰어 내리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유독가스 누출 및 오염



중 화학 공업의 발달로 인해 유독성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이들 시설들이 적의 공격을 받거나 운전조작 미숙 또는 안전관리 소홀 등의 원인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일정한 지역이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테러분자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등에 독가스를 살포하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독가스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도 있으므로 호흡이 곤란하고 구토 증세를 일으키거나 피부가 따가운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유없이 새들이 땅에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독가스로 의심하고 대처해야 한다.

● 유독가스 누출 및 살포시



방독면을 신속하게 착용한 후 **가스!** 라고 경고...

유독가스가 누출되거나 살포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 ▶ 방독면 또는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가스!' 라고 경고하고, 비닐 등으로 몸을 감싸주어 피부를 보호한다.
- ▶ 가능한 신속하게 신고한다.
(111, 119, 가까운 행정기관)
- ▶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 내가 있는 곳에서 오염지역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대피
 - 오염지역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바람방향과 수직이 되는 좌우측방으로 대피
- ▶ 대부분의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대피할 때에는 일단 고지대나 건물의 상층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실내로 대피했을 경우에는 오염물질이나 가스가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시켜야 한다.

-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는다.
- 문틀이나 창문틀은 젖은 타올이나 신문지 또는 알루미늄 접착테이프 등으로 밀폐시킨다.
- 에어컨, 환풍기는 작동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유독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알루미늄 랩, 접착테이프 등으로 기기 주변을 밀봉시킨다.
- 공기정화장치는 유독가스를 정화시킬 수 없으므로 작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 대피시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 등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최대한 도와주어야 한다.

▶ 유독가스에 오염된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우선 환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주어 호흡을 편하게 해주면서 119에 신고하여 환자 발생 장소, 현재의 환자상태 등을 알려줌으로써 환자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규모 유독물질 누출시

대규모로 유독물질이나 가스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시설에서는 유독물질이나 가스가 누출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와 같은 상황발생시 해당 시설 및 행정관서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마을 방송을 통해 현재의 상황과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 ▶ 휴대전화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대피하도록 지시를 받으면
 - 지시된 대피로를 따라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한다.
(지름길 등 기타 이동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사전에 준비해둔 비상대비물품을 휴대하고 한번에 대피한다.
(휴대용 전등 및 라디오, 비상식량 및 물, 구급약품, 현금 및 신용카드, 보험증서 등 휴대)
 - 출타중인 가족에게는 현 상황, 대피장소 등을 알려주어 대피장소로 직접 가도록 한다.
 -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집의 문과 창문을 닫고 환풍기 등을 꺼서 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 등을 최대한 도와서 함께 대피한다.
- ▶ 대피기간 중 음식물이나 식수 등은 관계기관이 안전하다고 확인해 준 것만 섭취해야 한다.
- ▶ 관계기관에서 오염지역에 대한 방제, 제독을 완료하고 그 지역이 안전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귀가해도 좋다고 승낙할 때 귀가해야 한다.

- ▶ 귀가 후 주변에 방치된 오염물질 잔해는 함부로 만지지 말고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유독물질을 실은 탱크로리 전복시

유독물질을 실은 탱크로리의 전복으로 인한 유독물질 누출현장이나 유독가스 누출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 ▶ 무턱대고 현장에 접근하면 안 된다.
- ▶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에서 현장상황을 파악한다.
- ▶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119로 신고한다.
 - 현재의 위치, 상황 등은 필히 알려줄 것
- ▶ 능력범위 내에서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상황을 전파하고 이들이 오염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 ▶ 시간이 허락될 경우에는 소방관 등 관계요원이 현장에 출동하면 지금까지 파악한 상황을 알려주어 피해확산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오염물질에 중독된 환자처리는 신중해야 한다.

- ▶ 관계기관 전문가가 오염물질의 본질을 규명하고 오염환자에게 접근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할 때까지는 환자에게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이를 무시할 경우 당신도 오염될 수 있다)



- ▶ 환자에게 접근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면서 119로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한다.
- ▶ 만일 당신의 피부나 눈에 오염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이 묻었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15분이상 씻어 준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공통 유의사항

- ▶ 사고발생 현장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오염이 의심되는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 ▶ 유독물질 누출로 인해 유독가스가 증기나 연기, 가스의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질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헝겊 등으로 입과 코를 막아 이들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TV, 라디오, 행정기관의 안내방송 등을 계속 청취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된 대로 행동한다.
- ▶ 관계기관에서 오염지역에 대한 방제, 제독 등을 완료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에 행정관서의 지시에 따라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세균살포 및 전염병 발생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소량으로도 대량의 인명살상과 심각한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세균과 바이러스에는 탄저, 페스트, 두창, 보툴리즘 등이 있으며 실제로 일부 전쟁터나 테러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생물무기가 사용되어 막대한 인명을 살상하고 지역을 오염시켜 사회적 혼란 및 황무지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치명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비난을 의식하여 전쟁터에서도 은밀하게 사용하여 조기 탐지가 매우 어려워 그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으며, 특히 최근의 일부 테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특정지역에 은밀히 살포하거나 일상에서 흔히 이용하는 소포나 우편물의 형태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유포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현실에 처해 있다.

● 수상한 백색가루가 살포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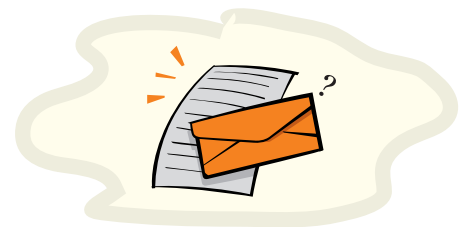
- ▶ 두려워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 ▶ 가루에 접근하여 만지지 말고 옷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 공기중으로 날리지 않도록 한다.
- ▶ 가루 근처에서 뛰어서는 안 된다.(가루가 날리어 퍼질 수 있음)
- ▶ 111, 119로 전화하거나 보건소, 행정관서 등에 신고한다.
- ▶ 가족이나 친지 또는 다른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소방관이나 전문요원 도착시 현장을 인계한다.
- ▶ 현장이탈 후 노출된 손, 얼굴 등을 씻고 의료요원에게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 수상한 소포나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을 때에는

- ▶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한다
- ▶ 주변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관계기관요원의 현장 출동시 인계한다.

●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을 때에는

- ▶ 우편물을 개봉하지 말고 격리된 곳에 보관하면서 인근 보건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신고한다.
- ▶ 우편물 보관장소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 ▶ 현장에 함께 있던 가족 및 친지나 직장동료는 신속하게 다른 방에 격리시킨다.
- ▶ 수상한 우편물을 취급할 때는 가급적이면 방독면 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그 상태에서 우편물은 비닐주머니 등에 넣어 보관한다.
- ▶ 취급부주의로 우편물이 개봉되어 의심스러운 물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변을 차단하고 즉시 보건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신고한다.
- ▶ 흘러나온 의심스러운 물질이 분말인 경우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자리에 옷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 ▶ 의심스러운 물질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묻은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고 보건당국이나 전문의료진의 지시에 따른다. 이 때 분말이 묻은 부위로 얼굴이나 눈 등을 만져서는 안된다.



● 적의 공격이나 테러에 의한 생물무기 사용이 경고되면

- ▶ TV, 라디오, 민방위 조직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계속 입수하고 대응할 준비를 한다.
- ▶ 병원체를 운반하는 쥐, 벼룩, 이, 진드기, 모기 등을 박멸한다. (쥐잡기, 살충제 살포 등)
- ▶ 주거시설이나 작업장, 사무실 등은 청결을 유지하고 발병가능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적합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몸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구류는 자주 일광소독한다.
- ▶ 생물무기가 쉽게 살포될 수 있는 연못이나 하천에서 씻거나 목욕을 하지 않는다.
- ▶ 음식물은 최소한 15분 이상 끓여서 먹는다.

● 분무나 살포에 의한 공기오염이 의심되면

- ▶ 즉시 해당건물이나 빌딩의 환기장치를 끈다.
- ▶ 해당장소를 즉시 떠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 가능하면 출입문을 잠근다.
 - 문밖에 '오염의심지역' 이라고 써 붙인다.
- ▶ 해당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건당국 및 행정당국에 제출한다.
- ▶ 보건당국의 검사 및 확인 종료시까지 당국의 지시에 철저히 따른다.

●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해 전염병이 발생하면

-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가지 말고 불필요한 대인접촉을 피한다.
- ▶ 방독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코와 입을 보호하고 비옷이나 보호의를 입어 신체를 보호한다.
- ▶ 발병지역이나 세균 및 바이러스가 퍼져있는 지역에서는 행정관서에서 지정한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안전지역으로 대피 후 보건당국의 통제에 따라 질병감염 여부와 피복 및 소지품 등에 대한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 보건당국이 안전하다고 판정한 인원은 당국의 지시대로 귀가한다
 - 질병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다.
- ▶ 질병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협조한다.
- ▶ 오염이 의심되는 물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사용하며, 오염물질을 씻어 낸 물은 하수도나 하천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별도의 방수용기에 담아 두고 당국의 지시대로 처리한다.
- ▶ 가축은 밖에 내놓지 않으며, 감염된 가축은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격리 또는 도살 처분하고 매몰한다.
- ▶ 생물학 오염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이나 오염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방사능물질 누출



우리나라는 수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의 상당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연구시설, 의료장비, 측정 장비 등에도 방사능물질이나 방사선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 적이 장사정 미사일이나 공중공격을 감행하여 원자로나 방사능 물질 저장시설에 피해를 입힌다면 방사선이 방출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테러분자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거나 방사능 물질을 탈취하여 악용한다면 이 역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적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강력한 폭발과 고열, 섬광은 물론이고 누출된 방사선과 방사능 낙진이 그 일대를 광범위하게 오염시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사선은 빛이나 냄새, 맛이 없어 사람의 오감으로는 이를 감지할 수 없으므로 정부기관의 지시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방사능 물질 누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거나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으면 라디오, TV, 민방위조직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 상황발생시 집에 있다면

-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애완동물들이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잠근다.
- 에어컨이나 환풍기, 공기정화장치는 끄고 틈새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테이프, 물수건 등으로 밀폐시킨다.
- 가급적 건물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대피하되 집 건물에 지하실이 있다면 지하실에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정부기관에서 안전하다고 확인할 때까지 집안에 머무른다.

▶ 상황발생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직장에 있다면

-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잠근다.

- 출입문과 창문틈새를 물수건이나 헝겊 등으로 밀폐한다.
- 사무실의 환풍기, 에어컨 공기정화장치는 끄고 틈새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밀폐시킨다.
- 가급적이면 건물의 가장 안쪽 방으로 대피하여 방사선이나 방사능물질의 유입을 최소화한다.

▶ 상황발생시 시내 외출 중이면

-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주변의 대피할 곳을 찾는다.
- 지하철 역사나 지하도 등 지하시설, 콘크리트 건물 내부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 상황발생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중이면

- 버스에서 내려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가까운 지하도나 콘크리트 건물로 대피한다.
- 지하철에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하시설 내부에서 침착하게 행동한다.
- 가족에게 연락하여 걱정하지 않도록 한다.

▶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안이나 실내로 들어 왔을 때에는

- ▶ 샤워를 하여 몸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 오염된 옷을 벗은 후 새옷으로 갈아입고 신발도 바꾸어 신는다.
- ▶ 갈아입은 옷이나 신발은 비닐주머니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집이나 건물 밖에 내놓는다.

▶ 집안에 대피 중, 보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 ▶ 라디오나 TV, 민방위 조직 등을 통해 대피절차, 사용할 대피로와 대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 ▶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밸브를 잠근다.
- ▶ 비상대비 물품을 챙겨 대피시 가족들과 나누어 운반한다.
- ▶ 출입문을 잠그고 흰수건이나 흰옷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어 '소개 완료' 표시를 한다.
- ▶ 지정된 대피로를 따라 새로운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한다.(지정된 대피로 이외의 길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

▶ 핵 공격이 경보되었을 때에는

- ▶ 가까운 지하도나 지하철역, 건물 지하주차장 및 지하실 등 지하시설로 대피한다.
- ▶ 지하시설 내에서도 가급적이면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 ▶ 집안에 지하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하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 ▶ 미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되 양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리며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폭발이 멈춘후에는 방사선에의 노출과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가까운 가옥이나 실내를 찾아 샤워한 후 오염되지 않은 옷으로 갈아 입는다)

●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고 있을 때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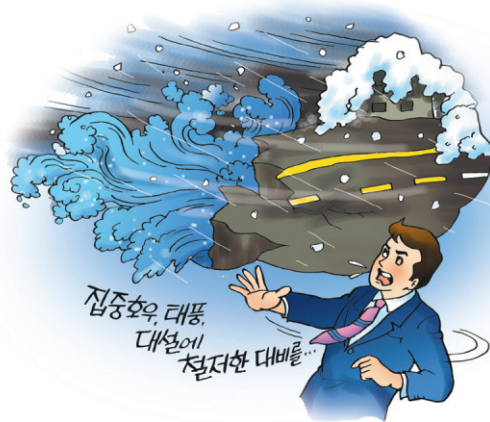
- ▶ 가급적 집안이나 건물내부에서 생활한다.
- ▶ 우물이나 장독 등은 뚜껑을 덮어 둔다.
- ▶ 음식물은 실내로 옮기고, 옥외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 가능하면 오염여부를 검사 후 안전한 음식만 섭취한다.
 - 채소와 과일은 잘 씻어서 먹는다.
- ▶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비옷과 우산을 사용하여 낙진이 신체에 묻지 않도록 한다.
- ▶ 외출 후 실내로 들어갈 때에는 우산을 접고 비옷을 벗은 후 샤워를 실시한다.

●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하려면

- ▶ 방사능물질과 나와의 거리가 멀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방사선은 줄어든다.
- ▶ 방사능물질과 나 사이에 납이나 콘크리트 벽 등과 같은 무겁고 밀도가 높은 물질이 있으면 방사선 투과율이 낮아져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줄어든다.
- ▶ 방사선은 빠른 시간에 위력이 감소하므로 방사능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면 방사능 오염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위협이 없어져도 정부기관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할 때까지는 위험요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대피장소에서 침착하게 행동한다.

기상악화 및 지진발생



우리나라의 기상현상 중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대설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지진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한반도 인근지역을 진원지로 하는 지진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와 환경파괴에 따른 기상이상 현상이 겹쳐 집중호우와 태풍의 위력이 한층 강해지고 눈도 겨울 뿐만 아니라 봄에도 대단히 많은 양이 내려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진 또한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며 빈도는 낮더라도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므로 이 역시 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 태풍 경보 발령시

태풍이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기상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매년 8, 9월경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태풍경보가 발령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도시지역에서는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차량을 주차시키지 말고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웃의 지상건물이나 지정된 대피시설로 대피한다.
- 바람에 의해 떨어지기 쉬운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는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고층 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유리창에 비닐테이프를 붙여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에 대비한다.
- 호우시 실내나 거주공간으로 물이 넘쳐 들어올 수 있는 곳에는 모래주머니 등을 쌓아 주어야 한다.
-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옥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므로 옥상에 나가지 말아야 하고, 순식간에 물이 모이는 빗물맨홀이나 갑자기 침수될 수 있는 지하실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농촌지역에서는

- 가옥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이웃집이나 마을회관 등으로 미리 대피한다.

- 모래주머니나 썰매대 등을 이용하여 하천제방을 보강함으로써 급격히 불어난 하천물이 농경지나 마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논둑은 미리 물꼬를 터주어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차량이나 농기구 등은 가급적 하천이나 물길과 멀리 떨어진 평평한 곳에 보관한다.
-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시설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준다.

▶ 해안지역에서는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 바닷가의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항·포구에 정박 중인 선박은 단단하게 묶어주고 어망과 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해안도로에서의 차량운행은 위험하므로 이를 회피한다.
- 선박의 입출항 통제에 순응하고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거리 일지라도 임의로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

▶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속보를 청취한다.

▶ 바람에 날리기 쉬운 물건은 단단히 잡아매거나 미리 제거하여 가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정전시에 대비하여 손전등을 준비하고 출타중인 가족과의 비상연락 대책, 유사시 대피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므로 접근하지 않는다.
-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특히 지상에 노출된 전기맨홀이나 변압시설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 ▶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 차량운행을 자제하되 운행시는 감속운행한다.
- ▶ 물에 잠긴 도로를 걸어가거나 그 곳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 ▶ 대피시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원차단기를 내려 놓는다.
- ▶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 침수된 집안에는 가스가 차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가능할 경우에는 자체노력으로 물을 빼낸다. 이 때 전선이 바닥에 늘어져 있을 경우에는 감전될 수 있으므로 접근하면 위험하다.
 - 가옥내 전기·수도·가스 시설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점검 및 보수해야 한다.
 - 파손된 상하수도, 도로 등이 있으면 가까운 행정관서에 연락한다.
 - 불어난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에는 하천의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제방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 호우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호우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2시간동안 80mm이상의 강우가 예상될 때는 호우주의보, 150mm이상의 강우가

예상될 때는 호우경보를 발령하며 호우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도시지역에서는

-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대피할 준비를 한다.(필수적인 피복과 침구류, 생활필수품 등 미리 준비)
- 대형공사장이나 비탈면 등에 대한 관리인은 안전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시 보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않으며 특히 노상에 설치된 전기맨홀이나 변압시설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 차량운행시에는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가 제한되므로 평소 속도 보다 감속해야 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한다.
- 고층건물의 옥상이나 지하실, 맨홀 근처에 가지 않는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말고 지하실에 거주하는 주민은 미리 대피한다.

▶ 농촌지역에서는

- 집 주위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점검 및 보강하고 유사시 대피할 준비를 한다.
- 고압선 근처에는 가지 말고 집주위의 전선은 만지지 않는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나무 아래는 피하고 건물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한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한다.
 - 논둑을 미리 점검 및 보강하고 물꼬를 터 준다.
 -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로 및 배수로로 미리 점검한다.
 - 하천변의 아영객은 부근의 대피소나 안전한 가옥으로 대피한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은 안전한 장소로 옮기며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단단히 묶어 둔다.
- ▶ 해안지역에서는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는다.
 - 해안도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물에 떠내려 갈 수 있는 어망, 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해수욕장은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므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 산악지역에서는
- 산사태 발생가능지역의 주민은 미리 대피한다.
 - 고랭지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정비한다.
 - 계곡 등의 아영객은 가까운 대피소나 민가로 대피한다.

- 계곡물이 불어나면 고립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아영객은 물이 불어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계곡이나 산에 설치해 있는 기상정보제공 방송망이나 라디오, TV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고 미리 대처한다.
- ▶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른다.
- ▶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가급적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 주택가의 하수구와 집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한다.
-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 ▶ 하천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 ▶ 운행중인 차량은 안전을 위해 감속운행한다.
-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은 닫아둔다.
- ▶ 현 위치에서 대피시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린다.
- ▶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 물에 잠긴 집안은 가스가 차있을 수 있으므로 환기시킨 후 물을 퍼낸다. 이때 전기·가스·수도관 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관서에 연락한다.

● 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 도시지역에서는

- 자가용 보다는 가급적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 자가용 차량을 이용시에는 체인·모래주머니·삽 등을 준비한다.
- 내 집앞, 골목길에 쌓인 눈은 주민 스스로 치워야 한다.
- 빙판이 생긴 지역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준다.

▶ 농촌지역에서는

- 차량운행시 체인·모래주머니·삽을 휴대하고 안전하게 운행한다.
-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신속하게 가까운 대피소나 민가로 대피한다.
- 비닐하우스에는 받침대를 보강하거나 비닐을 일부 찢어서 재배시설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예방한다.
-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한다.
- 외딴집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비상연락을 취하고 안전을 확인한다.

▶ 해안지역에서는

- 각종 선박의 적하물을 내리고 단단하게 선박을 묶어둔다.
- 양식장의 물고기에게 줄 사료를 미리 준비한다.
- 염화칼슘, 모래를 사전 비치하고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운다.
- 방파제, 선착장 등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해안도로에서의 차량운행은 자제하고 운행시에는 반드시 체인 등 안전장구를 부착한다.
- 외딴집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연락을 취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및 교통상황을 파악한다.

▶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가급적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차량을 이용해 장거리 이동시에는 체인, 삽 등을 준비하고 고립시에 대비하여 담요, 손전등, 물, 비상식량 등을 휴대해야 한다.

● 지진이 발생하면

▶ 가정에서는

- 견고한 식탁이나 탁자 아래 또는 면적이 좁은 화장실로 대피한다.
- 대피할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파편 등을 조심하면서 침착하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전기 차단 스위치와 가스밸브를 차단한다.

-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문틀이 틀어져 실내에 갇히지 않도록 출입문을 미리 열어 놓는다.

▶ 거리에서는

- 변화가에서는 간판 등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지품으로 머리를 가리거나 손으로 감싸면서 가까운 대형건물 내부로 대피한다.
- 미처 대피하기 전에 심한 진동이 오면 진동이 멈출때까지 낮은 자세로 그 자리에서 머문다.
- 건물, 가로등, 전선에 접근하지 않는다.
- 차량운전 중에는 즉시 차량을 세우고 차량 밖으로 탈출한다.

▶ 대형건물 등에서는

- 가급적 튼튼한 기둥이 있는 안쪽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사무실 책상 아래로 대피하고 가방이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감싸준다.
- 정전에 대비해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엘리베이터 이용 중 지진이 발생하면 전층의 버튼을 눌러 즉시 세우고 신속히 대피한다.
-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119로 신고하거나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를 요청한다.

- ▶ 라디오, TV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지시대로 행동한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방독면 사용/구매방법

1. 방독면 사용법

01



- * 독성가스로부터 얼굴과 호흡기등을 보호하려면
- * 방독면을 얼굴에 쓰기 전에 먼저 보관하고 있던 정화통보관함에서 포장지를 제거함(비닐포장은 실제 사태시에만 개봉해야 하고 훈련목적으로 착용시는 개봉하지 말 것)
- * 정화통집 덮개를 열고 정화통을 넣음
- * 정화통집 덮개를 꼭 닫아 공기 누출을 방지함

02



- * 쓰기전에 숨을 크게 들어 마신뒤 호흡을 멈추고 방독면을 머리부터 뒤집어 쓴다. 이때 머리끈을 조이고 목끈을 뒤로 잠근다.

03



- * 그리고 나서 제대로 써졌는지 숨을 힘껏 바깥으로 불어내고 다시 정화통 앞을 막고 숨을 크게 들이쉬어본다.

04



- * 이때 안면부가 빨려 들어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머리끈을 다시 한번 힘껏 당겨준다

2. 방독면 구매방법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민방위담당)에 구입을 요청하거나, 직접 판매취급소에 구입하면 된다.

3. 방독면 성능비교

구 분	한국형(K-1)방독면	일반 방독면	다용도 방독면
유 형			
용 도	• 전쟁용 독성화학 가스로부터 안면부, 호흡기를 보호 • 생물학전 하에서 세균 등 방호가능 • 방사능에 오염된 분진(먼지입자) 방호		• 화재시 연기·열·유독가스 방호 • 전쟁용 독성화학 가스로부터 안면부, 호흡기 보호 • 세균, 방사능 분진 방호 가능
방호 가능 시간	가스종류와 농도에 따라 (18~180분)	가스종류와 농도에 따라 (6~30분)	• 전쟁용 정화통 : 최소 6분 정도 • 화재용 정화통 : 최소 5분 정도
특 성	착용상태에서 음성 전달 및 음료수 섭취 가능	염가로 제작된 국민형	화확전 및 화재 발생시 사용
제한 사항	• 산소 18% 이하인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불가 • 암모니아 가스, 일산화 탄소, 연탄가스,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은 방호되지 않음.		• 산소 18% 미만인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 불가 • 사고현장에서 작업, 구조활동 등에 사용 금지 • 밀봉된 상태로 보관해야 수명 유지

응급처치 요령



구조호흡,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 구조호흡

구조호흡은 호흡이 정지된 환자에게 강제로 공기를 불어넣어 주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구조호흡을 실시하는 요령은 먼저 부상자의 의식유무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10초 이내에 호흡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없으면 5초에 한 번씩 공기를 불어넣어 준다.

●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환자에게 구조호흡과 흉부압박을 통하여 뇌세포 등에 산소를 공급시켜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요령은 먼저 의식을 확인하여 호흡이 없으면 구조호흡을 두 번 실시하고 경동맥을 확인하여 맥박이 없으면 흉부압박을 약 10초 정도에 약 5cm의 깊이로 15회 실시하고 두 번 불어 넣기를 5초 정도에 실시한다.

● 기도폐쇄

음식 등을 먹다가 또는 어린아이들이 동전 등을 삼키는 등 이물질이 식도에 걸리어 기도가 막혀 호흡이 멈추는 것을 말하며 이런 경우 등을 두드리거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입을 강제로 벌려서 이물질을 옆으로 꺼낸다. 이물질이 목에 꼭 막혀 있을 경우에는 이물질을 삼킨 사람의 배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위쪽으로 힘차게 당겨주는 동작을 반복하면 이물질이 튀어나온다.



상처, 드레싱, 붕대



● 상처 및 응급처치

상처의 종류에는 베인 상처, 긁힌 상처, 찢린 상처, 찢어진 상처, 갇눌린 상처 등이 있다. 이러한 상처는 출혈이 많은 경우와 출혈이 적지만 감염의 위험이 큰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출혈을 방지하여 주고 감염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여 주어야 한다.

● 드레싱 및 붕대

드레싱은 부상부위에 소독된 거즈를 대어주는 것으로 소독된 거즈가 없을 경우에는 깨끗한 천을 불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이 드레싱을 고정하여 주고 부상부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붕대를 사용한다. 붕대를 감아 줄 때에는 너무 세게 감지 말고 피부 색깔이 보일 정도로 느슨하게 감는다.

열과 냉에 의한 손상

● 화상

불이나 연기, 수증기, 뜨거운 물체, 태양열 또는 화학물질 등에 의하여 우리 몸의 피부가 손상을 입는 것을 화상이라 한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상처부위에 차가운 물을 끼얹거나 차가운 물에 담가 상처부위를 식혀 주어야 한다. 이 때 상처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아야 한다. 상처부위가 식은 다음에는 얼음 등으로 찜질을 하고 상처부위에 화상용 연고를 바르고 거즈를 붙여 상처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 동상

우리 몸이 추위에 노출되거나 화학약품 등에 의해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추위에 의한 경우 특히 귀, 손가락, 발가락 등이 동상에 잘 걸리는 부위이다. 동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추위에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움직이거나 하여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절

● 골격 및 골절

우리 몸의 골격은 약 200여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골격의 역할은 체형을 이루고 균형을 유지하여 주며,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근육을 부착시켜 신체의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뼈가 외부의 충격 등으로 부러졌을 경우 부러진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불구

가 될 수 있다. 골절이 생기면 먼저 부상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동해야 할 경우 부러진 부위를 고정시켜 주어 더 이상의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골절처치

골절된 신체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대어 고정시켜 주는 것이 기본 응급처치이다. 이때 사용하는 부목은 고정부목과 대용부목이 있으며 대용부목은 책이나 잡지, 담요, 베개 등이 있다.

주의할 점은 부러진 뼈를 임의로 맞추려 하지 말고 골절된 상태 그대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또한 목뼈나 등뼈를 다친 경우라면 환자를 엎지 말고 들것으로 운반하거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중 독

중독에는 약물중독, 가스나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벌레에 물리거나 쓰였을 경우, 독성식품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응급처치는 독이 우리 몸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여 더 이상의 악화를 방

지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신속히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운 반

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부상자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상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반방법에는 들 것을 이용한 운반과 1인 운반, 2인 운반 등이 있으며 부상자를 운반하기 전에 앰블런스가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리고 위급상황에서 부상자를 빨리 이동하여야 할 경우 끌기법을 이용하여 재빨리 부상자를 옮길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연락처

구 분	휴대전화	일반전화
화재신고	지역번호+119	국번없이 119
테러신고	지역번호+111	국번없이 111
응급구조 요청	지역번호+119 또는 아래의 응급의료정보센터	국번없이 119 또는 국번없이 1339

지역별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 의료 정보센터명	관할 지역	홈페이지 주소	휴대 전화 사용 시	일반 전화 사용 시
서울응급의료 정보센터	서울 제주	www.se-emc.or.kr	02-1339	국번 없이 1339
부산응급의료 정보센터	부산 울산	www.ps-emc.or.kr	051-1339	
대구응급의료 정보센터	대구 경북	www.dg-emc.or.kr	053-1339	
인천응급의료 정보센터	인천 서해	www.ic-emc.or.kr	032-1339	
광주응급의료 정보센터	광주 전남	www.kj-emc.or.kr	062-1339	
대전응급의료 정보센터	대전 충남 충북	www.dj-emc.or.kr	042-1339	
수원응급의료 정보센터	경기 남부	www.sw-emc.or.kr	031-1339	
의정부응급의료 정보센터	경기 북부	www.ujb-emc.or.kr		
강릉응급의료 정보센터	강원 영동	www.yd-emc.or.kr	033-1339	
원주응급의료 정보센터	강원 영서	www.wj-emc.or.kr		
전주응급의료 정보센터	전북	www.jj-emc.or.kr	063-1339	
마산응급의료 정보센터	경남	www.ms-emc.or.kr	055-1339	



전쟁, 테러, 재난 발생시 국민행동 요령

발행처 _ 비상기획위원회
발행일 _ 2005년 12월
기획 _ 성진호(2272-4641)
일러스트 _ 강인환

이 책자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제작 비매품으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www.epc.go.kr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홍보협력담당관실
Tel 02-503-7709 Fax 02-503-7711

※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 02-970-1401, 1429